

김유신[金庾信]

신라 최고의 장군이자 충신 그리고 수호신

595년(진평왕 19) ~ 673년(문무왕 13)



김유신 표준영정

/ 전통문화포털(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정보원) /

1 개요

김유신(金庾信, 595~673)은 태종무열왕과 문무왕을 도와 신라의 삼국통일 달성에 크게 기여한, 신라를 대표하는 장군이자 충신이다. 후에는 신라의 수호신으로 추앙받았다.

2 출신과 가계

김유신은 532년(법흥왕 19) 9월 신라의 압박에 굴복하여 신라에 귀의한 금관가야(金官加耶)의 왕족 출신으로 가야 시조 김수로왕(金首露王)의 12세손이다. [관련사료](#) 그는 신라에 투항한 금관가야 마지막 왕인 구형왕의 셋째 아들 김무력(金武力)의 아들 김서현(金舒玄)과 진흥왕(眞興王)의 동생인 숙흥종(肅訖宗)의 딸 만명부인 김씨(萬明夫人 金氏) 사이에서 595년(진평왕 17)에 출생하였다. [관련사료](#) 그의 탄생지는 만노군(萬弩郡, 지금의 충북 진천군 일대)이다.

형제로는 김흠순(金欽純)과 보희(寶姬), 태종무열왕의 왕후인 문명부인(文明夫人)이 있다. 배우자는 태종무열왕의 딸 지소부인 김씨(智炤夫人 金氏)이고, 부인과의 사이에서 김삼광(金三光), 김원술(金元述), 김원정(金元貞), 김장이(金長耳), 김원망(金元望) 등 5명의 아들과 이름이 전해지 않는 4명의 딸을 두었다. 그는 태종무열왕과 중첩된 혼인 관계를 맺으면서 긴밀한 사이가 되었다. 그의 집안이 망명한 가야 왕족이지만 신라 최고위 신분층인 진골(眞骨)이 되었던 것은 그의 부친과 자신이 신라 왕실과 연이어 혼인했던 것이 큰 이유였을 것이다. 그밖에 서자(庶子) 김군승(金軍勝)이 있고, 손자는 김윤중(金允中)과 김윤문(金允文)이 있으며, 김윤중의 서손(庶孫) 김암(金巖)은 당과 일본까지 이름이 널리 알려졌다고 한다. 또 김유신의 행록(行錄) 10권을 지었다는 후손 김장청(金長淸)도 있다.

3 일생과 업적

김유신의 탄생은 여러 신이한 일들이 있었다는 『삼국사기(三國史記)』 [관련사료](#) 와 『삼국유사(三